2008년세 우수법인상 수상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光州日報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신입생 2008.12.1~2009.1.7
편입생 2008.12.1~2009.1.14
(www.knou.ac.kr 참조)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5-5100

제1825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1월 5일 (음력 12월 10일) 월요일

열손가락 없는 김홍빈씨 7대륙 최고봉 등정 성공

남극 빈슨 매시프 광주일보 정후식 사회1부장과 함께 올라

"우리에게 좌절은 없다. 어떤 역경에 처해있더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마침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새해 벽두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46)씨가 장애인으로서 사상 첫 7대륙 최고봉 등정의 대기록을 세우는 낭보를 전해왔다. 광주일보사 등의 후원으로 남극대륙 최고봉(4,897m) 빈슨 매시프(massif·山塊) 등정에 나선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50분(현지시각) 정상을 밟았다.

김 대장과 정후식(47·광주일보 사회1부장) 대원으로 구성된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의 등정 성공은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 극복을 다짐하며 힘차게 새해를 출발한 광주·전남지역 주민과 전 국민의 가슴에 큰 희망으로 솟아올랐다. 광주·전남비전21이 주최한 이번 원정은 광주일보와 KTF, 광주시, 순천시, 금광기업이 후원했으며 (주)에코로바가 협찬했다.

지난달 11일 출국한 김씨는 23~24일께 정상등반

조난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산악인 김홍빈(46·사진 왼쪽)씨와 정후식(47) 광주일보 사회1부장이 지난 2일 오후 3시50분(현지시각)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4천897m) 등정에 성공했다.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 국민들에 희망 심어줘

에 나선 뒤 오는 10일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칠레 최남단 도시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으로의 출발이 지연됐다.

원정대는 연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르고 '풍극(風極)'이라 불릴 만큼 눈을 동반한 강한 폭풍설(블리자드)이 쉼없이 몰아치는 악천후를 뚫고 빈슨 매시프 정상에 올랐다.

대원들은 빈슨 매시프 서면(West Face)에 3개의 캠프(2,700m, 3,100m, 3,700m)를 차례로 구축했다. 제2캠프까지 눈썰매를 끌어 장비를 나르고 경사 60~70도의 빙·설벽을 올라 제 3캠프를 설치하고 정상에 오르는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했다.

1991년 북미 매킨리 봉을 혼자 등반하던 중 조난사고로 동상을 입는 바람에 열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김씨는 산악인으로는 치명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7대륙 최고봉 완등의 위업을 이뤄냈다.

그는 유럽 엘브루즈(5천642m),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천895m), 남미 아콩카과(6천959m), 북미 매킨리(6천194m), 호주 코지어스코(2천228m), 아시아 에베레스트(8천848m)를 차례로 등정, 7대륙 최고봉 완등에 남극 빈슨 매시프 정상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은 국내에서도 처음은 아니지만 열 손가락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의 대기록이다. 김씨는 7대륙 최고봉 완등과 더불어 2006년부터 가셔브룸2와 시샤팡마 남벽, 에베레스트, 마칼루 정상을 차례로 오르는 등 8천m급 14좌 완등 도전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남극으로 떠나기 앞서 "1997년도에 7대륙 최고봉 등반을 시작해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간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극=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NAVER 지식iN
우리 아이 키?
성장클리닉
청연한의원 031-371-1075-6

조기 대풍 … 열띤 목포의 새벽 영하의 날씨를 녹이는 새벽 위판장의 뜨거운 열기가 올 한해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조기와 병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목포시 금화동 목포수협공동위판장에 중개인들의 열띤 가격 흥정으로 생동감이 넘친다. /목포=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회 극한 대치…이번 주가 고비

김 의장 "직권상정 자제, 대화 해야"

민주당 의원총회 농성 해제 등 논의

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직권 상정 자제를 선언하고 여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다시 한번 종용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5면〉

더욱이 민주당이 이날 밤 8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 농성 해제 등을 논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국회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가 3~4일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에 대해 질서유지권을 행사,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틀 동안 모두 6차례 경위 및 방호원을 민주당 측이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전격 투입,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이 난무한 끝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40여명의 민주당 보좌진 및 당직자, 국회 경위·방호원 20여명 등 6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에 김 의장은 4일 오후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여야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가자지구 전면전 돌입

이스라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탱크부대 등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가자지구로 투입, 전면적인 지상작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5면〉

이스라엘 지상군은 이날 저녁 공격용 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접경선을 넘어 가자지구로 진입했고, 하마스는 박격포를 발사하고 도로에 매설된 폭발물을 터뜨리며 반격에 나섰다고 이스라엘과 아랍 언론이 보도했다.

가자지구의 밤하늘에는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의 화염과 총탄의 섬광이 목격됐다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전했다. 이스라엘 군은 일부 지역에서 박격포 등으로 무장한 하마스 무장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교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강만수 장관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3일 밤 5개부처 장관이 출연한 가운데 열린 KBS '국민대정부 질문'에서 "(연구기관들이) 2주 단위로 (성장률을) 낮춰볼 정도"라며 상황을 진단한 뒤 "경기는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측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강을 강답게 살리자는 프로젝트"라면서 물류나 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운하에 대해선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